


공동체 소식



연중 제26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 주시어, 저희가 약속하신 그곳으로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9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신심미사 안내

- 성모신심: 10/1(토) 오전10:00, 성모신심미사, 묵주기도와 함께하는 미사.
- 예수성심: 10/7(금) 오전10:00, 십자가의 길 기도 (미사 30분 전 시작).

본당 평협회

-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

본당 야외미사

- 일시: 10/2(다음 주일) 11:00,
- 장소: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 준비: 가벼운 마음과 운동복.
- * 음식 준비 관련사항은 성모회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총구역회

- 일시: 10/9(주일), 교중미사 후.

‘스톤 채플(Stone Chapel)’ 건물보수기금 모금에 정성껏 협조바랍니다.

- 기준금액: 300불/1가정.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 장소: 본당 나자렛관.

본당에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461	221	502	289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차민서 임마누엘	-
	김정원 안젤라	-
다음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대연 요셉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네스

애찬 봉사자

금주	조경희, 김계숙, 김진미
차주	행사 2조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9/18	62명	310불	1,060불
김정원, 감영진, 한봉경, 이혁구, 문석찬, 김화년 (총 6세대)			
건축헌금	이번주 합계: 800불, 총합계: 3,0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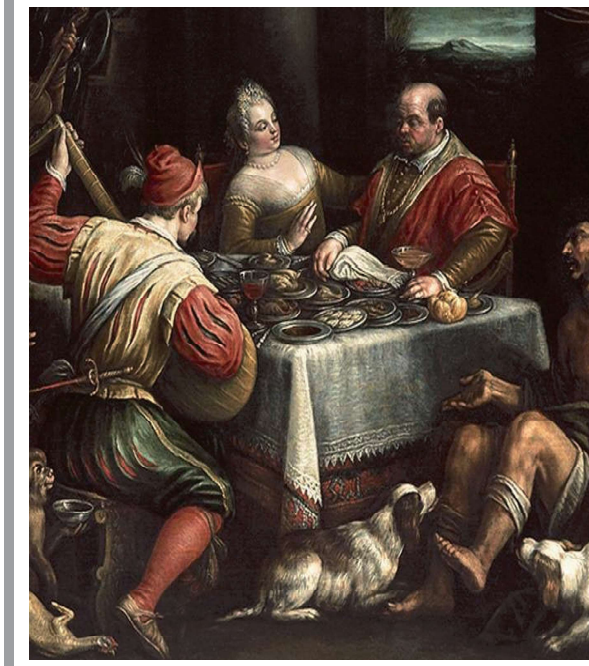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ihin@daum.net

회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ch01yim@hanmail.net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흥청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끝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크신 자비와 용서로 사람들의 악행을 참아 주고 계십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처럼 위로와 고초가 뒤바뀌는 하늘 나라를 생각하며, 가난한 우리 이웃을 잊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흥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성화해설

부자와 나자로 (레안드로 바사노, 1595년, 캔버스에 유채, 개인소장)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루카 13,30)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신실한 믿음과 사랑에 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할 줄 알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돌볼 때 가능합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6,1-4-7
<이제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6,11-16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9-31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쉐 마

가난한 이웃을 잊지 말자



다윗과 솔로몬 임금 이후 이스라엘은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로 갈라집니다. 열왕기는 남 왕국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북 왕국 이스라엘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만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북 왕국이 남 왕국에 비해 훨씬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 초기의 많은 예언자가 북 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을 보면 북 왕국은 종교적으로도 남 왕국 못지않은 나라였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1독서의 아모스 예언자도 북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북 왕국을 다스리던 임금은 예로보암 2세였습니다.(아모 1,1) 예로보암 2세 때 북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의 쇠퇴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우상숭배 등으로 인해 하느님을 잊고 사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등 종교적으로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아모스 예언자는 하느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패망하리라고 예언하는데, 북 이스라엘은 실제 기원전 721/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성경은 북 왕국의 멸망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2열왕 17,7-23)

오늘 복음은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비유에 앞서 약은 집사 비유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것은 재물을 잘 이용해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힙니다.(루카 16,9-12) 곧, 재물을 가진 이들은 언제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말고, 가난한 이웃과 나눔으로써 후일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자신을 맞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부자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

서만 사용하다 결국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이야기를 전해 주면서 당시 바리사이들이 재물을 사랑하여 북 왕국 이스라엘이 범하던 오류를 그대로 범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16,13-15)

오늘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사랑하는 제자 티모테오에게 아버지로서 따뜻한 권고를 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훌륭히 싸우기 위해 종말에 이르기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해 옮김으로써 자신이 옳은 것을 믿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물을 멀리해야 한다는 오늘 독서와 복음의 가르침은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독서와 복음 말씀은 재물이란 자신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이는 결코 하느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다 보면 하느님도, 이웃도 모두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행복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독서와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느헤미야

하칼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살아남은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통해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그 지방에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고 단식하면서 하느님께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느헤 1,1-11

느헤미야가 수사 왕궁에 있을 때 임금은 느헤미야에게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크게 걱정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고향의 조상님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임금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을 묻자 그는 무엇을 원한다고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느헤 2,1-10

느헤미야는 임금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춘 채, 여러 번 성을 둘러본 후 유다인들에게 불에 타 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무엇이래 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느헤 2,11-20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외부세력의 심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외부의 반대와 방해 뿐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와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의 재건축 사업을 성공한 것은 확고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축이 하느님의 일이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확신했기에 원수들의 조롱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고, 현실적으로도 백성의 일부를 무장시켜 원수를 대적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지도자에게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돌파하는 지도력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진정한 사과

미안하네 라자로.
사실 난 자네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네.

다만,
자네 이름이 내 머릿속에는 있었으나
내 맘속에는 없었네.

그게 내 진정한 잘못인 게지.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루카 16,27)